

# “한 번의 실패가 나를 더 강하게 만들어”

동강대 졸업 정영웅, kt 유니폼 입고 프로 첫발

선구안·빠른 발·강한 어깨·폭넓은 수비·장타력까지 공·수 ‘다재다능’  
“잘하는 것 토대, 나만의 경쟁력 키우자” 다짐...스프링캠프 합류 목표

“프로 도전에 한 번 실패한 뒤 마음가짐을 새롭게 했습니다. ‘남들이 잘하는 것을 나도 잘해야겠다는 생각보다, 내가 잘하는 것을 믿거름으로 삼아 실력의 범위를 넓히자’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2년의 노력 끝에 프로 입단이라는 선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동강대 야구부 출신 스포츠재활트레이닝과 정영웅(25)이 최근 열린 ‘2025 KBO 신인 드래프트’에서 kt 위치에 지명됐다.

동강대 야구부는 이번 졸업생 정영웅의 프로 지명으로 2021년을 제외하고 2018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프로야구 선수를 배출하게 됐다.

정영웅은 화정초-무등중-광주일고를 거쳐 동강대 졸업 후 프로의 꿈을 이어가기 위해 원광대에 편입했다.

정영웅은 “공만 잘 치면 프로에 간다는 생각에 타격에만 집중하던 시절이 있었다. 그런데 남들 따라가지 말고 내 스타일을 찾아야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타석에 서면 번트나 팀 플레이 등에도 집중했고 노하우가 쌓여 저만의 경쟁력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171cm의 단신이지만 정영웅은 공수에서 다재다능하다. 때문에 그의 플레이를 보고 있으면 키움 히어로즈의 외야수 이용규를 떠올리게 한다.

동강대 시절부터 팀의 1번 타자를 도맡은 정영웅은 뛰어난 선구안으로 출루율을 높여 수많은 득점 찬스를 만들었다.

또 빠른 발과 강한 어깨로 외야 수비를 책임졌다.

정영웅은 올 대학야구 U리그 기록만 보더라도 일찌감치 프로 입성이 기대됐다.

9경기에서 4할 타율(25타수 10안타)을 기록했고 10안타 중 2안타는 3루타다.

정영웅은 7타점, 6득점, 6도루, 7볼넷, OPS 1.105(출루율 0.545+장타율 0.560) 등 고른 활약을 펼치며 팀의 왕중왕전 진출을 견인했다.

정영웅은 “공격보다는 수비나 주루 플레이가 좋다. 타구 판단 등 순발력이 괜찮고 수비 범위가 넓다”고 자신있게 말했다.

이 같은 활약을 지난 6월 대전에서 열린 ‘제2회 한화 이글스배 고교 대학 올스타전’에도 뽑혔다.

특히 최근 경기 중계 때 KIA 타이거즈 출신 장성호 해설위원이 칭찬을 아끼지 않는 등 실력을 인정받았다.

정영웅은 프로의 꿈을 이루고 대학 유니폼을 입고 뛰는 경기도 모두 끝났지만 팀 훈련이 없는 주말에도 개인 훈련에 밤을 새우고 있다.

그는 “27일 수원에서 입단식이 있다. 내년 초 1군 스프링캠프에 참여하는 것이 1차 목표다. 그라야 팀 내에서 내 실력을 보여주고 될 기회를 잡을 수 있다”며 “고교 시절



kt 유니폼을 입고 프로 무대에 첫발을 내딛은 정영웅 (동강대 제공)

부터 팀 내에서 ‘히어로’라고 불렸다. 프로에서도 ‘히어로’라는 닉네임을 이어가고 싶다”고 당차게 말했다.

/박희중 기자

정규시즌 우승 KIA, V12 가는 길 ‘탄탄대로’

## “삼성·LG, 누구든 와라”

막강 화력 중무장...정규시즌 맞대결 ‘12승 4패’·‘13승 3패’ 압도



2024 프로야구 정규시즌 우승을 차지한 KIA 타이거즈가 올 시즌 2, 3위 팀들을 압도하며 한국시리즈에서 더욱 자신감을 갖게 됐다.

KIA는 지난 24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삼성과의 올 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7-1로 승리하며 16차례 맞대결을 모두 마쳤다.

일찌감치 KIA가 정규리그 우승을 확정지은 가운데 25일 현재 삼성 라이온즈, LG 트윈스, 두산 베어스가 가을 야구 출전을 확정했다.

삼성, LG는 정규리그 2-3위를 각각 플레이오프, 준플레이오프에 직행했고, 최소 5위를 확보한 두산은 4위로 와일드카드 결정전 출격을 노린다. kt wiz와 SSG 랜더스는 마지막 한 장의 출전권을 놓고 막판 경쟁 중이다.

한화, 롯데, NC와 잔여경기 1게임씩을 남겨둔 KIA는 2,3위팀을 상대로 호성적을 거두며 이번 리그를 마감할 예정이다.

상대전에서 LG에 13승 3패, 삼성에는 12승 4패로 앞서며, 전통 라이벌이라는 명칭이 무색할 만큼 KIA가

압도했다. 이들 두 팀이 한국시리즈에서 맞붙을 후 보라는 점에서 KIA는 V12 도전에 더욱 자신감을 가질 만하다.

이처럼 올 시즌 후보들을 상대로 절대 우위를 지킬 수 있었던 원동력은 단연 방망이에 있다.

KIA는 두 팀을 상대로 10개 구단 중 가장 강력한 화력을 뽐냈다. 올 시즌 두 팀을 상대로 한 팀타율을 보면 LG전 0.340, 삼성전 0.329를 기록하며 매 경기 상대마운드를 괴롭혔다.

중심타선에선 최형우가 LG전 0.373, 삼성전 0.381의 화력을 뽐냈고, 나성범도 LG전 0.378, 삼성전 0.370으로 불방망이를 과시했다.

이 밖에, 김도영과 소크라테스, 김선빈, 최원준 등도 3할대의 고타율을 기록하는 등 상·하위 타선 가리지 않고 주전 대부분이 고른 활약을 펼쳤다. 이처럼 화끈한 핵타선은 KIA의 한국시리즈 우승 전망을 더욱 밝게 하고 있다.

반면, KIA와의 상대전적에서 6승9패1무로 앞서 있는 두산이 한국시리즈에 올라올 경우 가장 끌려갈 수 있는 상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 시즌 KIA는 두산에 상대로 팀타율 0.286에 그치는 반면 두산은 KIA에 0.305를 기록했다. /주홍철 기자



## 손흥민 “언젠가 클럽 떠나도 레전드로 불려주길”

한국 축구 간판 손흥민은 24일(현지 시간) 팬들 앞에서 잉글랜드 프로축구 토트넘 홋스퍼 생활이 끝나는 날이 오더라도 구단의 전설적인 선수로 인정받길 바란다고 밝혔다.

토트넘 구단 소식을 전하는 스포스 웹에 따르면 손흥민은 이날 영국 런던의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팬 포럼에서 팬들이 웃을 수 있도록 ‘레전드’로 기억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된 영상을 보면 ‘토트넘에서 선수 경력을 마칠 것이냐’는 한 팬의 질문에 손흥민은 “미래는 알 수 없다. 거의 10년을 몸담은 여기서 계약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저 이번 시즌에 집중할 뿐”이라며 “언젠가 이 구단을 떠나는 날이 오더라도 여러분이 계속 웃는 광경, 여러분이 날 클럽의 레전드로



불려주는 걸 보고 싶다”고 덧붙였다. 손흥민과 토트넘의 현재 계약은 2025년 6월까지다. 다만 구단이 계약을 임의로 1년 더 연장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된 걸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2024 KUSF 대학배구 U-리그 챔피언결정전에서 경일대를 꺾고 챔피언에 등극한 광주여대 선수단이 시상식 후 우승 트로피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 제공)

## 광주여대 배구 ‘왕중왕’ 등극

창단 2년 만에 대학배구 U리그 제패...손운아 챔프전 MVP  
대학무대 평정 ‘4전5기’ 자신감...내달 전국체전 메달 도전

광주여대 배구부가 창단 2년 만에 ‘왕중왕’에 등극했다. 광주여대는 지난 24일 경일대 체육관에서 열린 2024 KUSF 대학배구 U-리그 챔피언결정전에서 경일대를 세트스코어 3대0(25-17, 25-19, 27-25)으로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광주여대는 지난 7일 열린 단국대와 플레이오프에서 세트스코어 3대1 승리를 거두고 결승에 진출했다.

지난해 창단한 광주여대는 탄탄한 전력으로 출전한 4번의 전국대회에서 준우승을 차지하는 저력을 선보였고, 올해 첫 출전한 KUSF 대학배구 U-리그에서 마침내 정상에 오르며 여자대

학배구 최강팀 입지를 굳혔다. 팀을 우승으로 이끈 공격수 손운아(특수교육과 초등특수전공)는 최우수선수(MVP)에 선정됐다. 최성우 감독이 최우수감독상, 손은진(스포츠학과 2)이 세터상, 박유리(스포츠학과 2)가 리베로상, 김연화(스포츠학과 1)가 블로킹상을 각각 수상했다.

최성우 감독은 “강한 훈련에도 포기하지 않고 빛나는 투혼으로 승리를 일궈낸 선수들과 이선재 총장님을 비롯한 학교 교직원들의 관심과 성원이 우승이라는 값진 결실을 맺었다”며 “매 경기 최선을 다한다는 각오로 광주여

대의 명예를 높여줬다”고 말했다. 다음달 열리는 전국체전에 광주대표로 출전하는 광주여대는 실업팀 양산시청과 첫 경기를 치른다.

최성우 감독은 “양산시청과 지난해 전국체전에서 첫 상대로 만나 어렵게 패한 기억이 있다. 이번 우승으로 경기력과 자신감을 끌어 올린 만큼 올해는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광주여대가 첫 경기에서 양산시청을 꺾으면 우석대와 목포과학대 승자와 준결승에서 만난다.

한편, 기보배·최미선·안산 등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들을 배출하며 여자 양궁 사관학교로 명성을 드높인 광주여대는 지난해 글로벌 체육 인재 양성을 위해 스포츠학과를 신설하고 배구부와 농구부를 운영 중이다. /박희중 기자

## 서구청 펜싱 김상진, 첫 우승 신고

김창환배 전국펜싱선수권

광주서구청 펜싱팀 김상진이 제2회 김창환배 전국남녀펜싱선수권대회 겸 국가대표선수 선발대회에서 첫 우승을 신고했다.

김상진은 지난 22일 강원 양구문화체육회관에서 열린 남자일반부 에페 개인전 결승에서 박상영(울산시청)을 15-10으로 꺾고 정상을 차지했다.

남자 에페 국가대표는 이번 대회를 비롯해 4개 대회 성적을 합산해 발탁

하는 가운데 김상진은 태극마크 가능성을 높였다.

김상진은 32강에서 손민성(화성시청)을 15-10, 16강에서 양윤진(익산시청)을 15-9, 8강에서 한정민(호남대)을 15-13, 준결승에서 안태영(국군체육부대)을 15-12로 연파하며 결승에 진출했다.

서구청 펜싱팀은 남자 단체전에서 3위에 입상했다.

서구청은 32강을 부전승으로 통과한 뒤 16강에서 충남기계공고를 45-35,



김상진이 박광현 서구청 펜싱팀 감독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서구청 펜싱팀 제공)

8강에서 울산시청을 36-28로 연파했으나 준결승에서 한국체대에 40-45로 패해 결승 진출이 무산됐다. /박희중 기자